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개최되는 대안적인 영화제

‘커뮤니티시네마페스티벌 2021’ 개최!

2021.5.3 ~ 2021.6.27

**2021년 5월 3일부터 6월 27일까지 전국 5개 지역 7개 소규모 상영관에서 ‘커뮤니티시네마페스티벌 2021’이 개최된다.** 지난 5월 3일,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진행된 ‘커뮤니티 시네마를 통한 영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 방안’ 정책 포럼으로 본격적인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 전국 5개 도시의 소규모 영화상영관(커뮤니티시네마) 2달간 순회하며 총 65편의 장·단편작품, 77회 상영**

**○ ‘국제연대’ 섹션 - 홍콩과 미얀마 등 아시아 민주화 운동에 대한 영화상영과 관객 프로그램 개최**



[‘커뮤니티시네마페스티벌 2021’ 포스터]

‘커뮤니티시네마페스티벌 2021’은 지역 소규모 영화관 간의 협동조합인 ‘커뮤니티시네마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과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지원센터 인디그라운드’(영화진흥위원회 설립)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전국 각 5지역의 7개 단체가 참여한다. 5월 19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다락스페이스’에서 5일간 개최되는 것을 시작으로 5월 25일 목포 ‘시네마라운지MM’, 6월 8일 원주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아카데미극장’, ‘고씨네’, 6월 16일 전주 ‘도킹텍복합문화공간’, 6월 23일 부산 ‘BNK부산은행아트시네마’에서 지역별로 5~6일간 순차적으로 열린다.

프로그램은 전 지역이 함께 상영하는 《공통섹션》과 각 지역별로 개별적으로 상영하는 《지역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섹션》에는 기후위기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동 내용을 전하는 ‘전환도시’와 홍콩 및 미얀마의 민주화운동 상황을 전하는 ‘국제연대’, 지역에서 만나기 어려운 최신 단편 독립영화를 소개하는 ‘영화문화’까지 3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국제연대’ 상영작으로는 올해 아카데미 단편영화상에 노미네이트 되었던 <두 낫 스플릿 (Do Not Split)>(2019)이 국내에서 최초로 소개되며 관객프로그램을 통해 ‘소모뚜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 대표’, ‘류성효 독립문화기획자’,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가 현지의 생생한 상황과 사회적 맥락을 소개한다.

영화제의 주최기관인 **‘커뮤니티시네마네트워크’ 권현준 이사장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많은 영화제들이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는데, ‘커뮤니티시네마페스티벌 2021’는 30명 이하의 소규모 지역 영화관들의 연대를 통해 공동체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방역조건 안에서 진행하는 팬데믹 시대의 대안적인 영화제다”고 의의를 강조하였다.**

**○ 커뮤니티시네마페스티벌 2021 캐치프레이즈 ‘The Impact of Community Cinema’**

**○ “팬데믹 시대에 영화제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고 이어질 수 있을까?”**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커뮤니티시네마페스티벌 2021’의 캐치프레이즈는 ‘The Impact of Community Cinema(더 임팩트 오브 커뮤니티 시네마)’이다. 첫 번째 행사의 이름으로 ‘임팩트’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에는 ‘영화(Cinema)’가 가진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의의를 커뮤니티시네마 활동을 통해 확장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커뮤니티시네마는 영화인들이 아닌, 시민과 관객들이 그 활동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예술적 관객운동과 차별된다. **커뮤니티시네마 활동은 영화를 통해 지역 시민들의 유대적 관계성을 조성하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으며, 영화를 매개로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서비스로서의 기능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커뮤니티시네마페스티벌 2021’ 역시 영화가 가진 여러 차원의 사회적 가치와 의의를 새롭게 조망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지역 공동체에 기여하고, 영화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공통섹션》의 주제로 삼은 ‘전환도시’와 ‘국제연대’ 섹션은 영화를 통해 지역의 주요한 담론을 결집시키고 사회적 연대 가치를 알림으로써, 영화에 대한 관객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기획되었다. **전국 5개 지역에서 소규모로 연속해서 개최되는 방식을 통해, 팬데믹 상황 속 대안적인 영화제의 모습을 탐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
| --- |
| **● ‘커뮤니티시네마페스티벌 2021’ 주최 기관 소개**  ‘커뮤니티시네마페스티벌2021’을 개최하는 **‘커뮤니티시네마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은 전국 지역에서 활동하는 영화단체와 소규모 영화상영공간의 주체들이 모여 2020년 결성한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이번 영화제의 상영공간을 운영하는 ‘모퉁이극장’, ‘다락스페이스’, ‘시네마라운지MM’, ‘무명씨네’, ‘고씨네’ 등 이들은 모두 지역에서 시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동체 문화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단체 및 소규모 영화관 운영자로 대다수는 정식 영화관으로 등록되지 못한 비상설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다.  법적인 정식영화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객석규모, 시설, 소방법 등에서 엄격한 조건이 따르는데 이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자본이 소요된다. 하지만 지역에서 지자체의 도움 없이 이와 같은 규모의 독립·예술영화관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보다 현실적인 소규모 공간에서 영화를 틀고 영화를 매개로 다양한 공동체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각자도생을 이어오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간 연대와 공동사업을 통해 활동의 연속성을 이어가고자 연대체 설립을 추진하였고, 2020년 7월 12일 ‘커뮤니티시네마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커뮤니티시네마’란 지역을 기반으로 영화를 매개로 이뤄지는 다양한 지역 공동체 활동과 공공적인 영화문화 활동을 의미하며 현재 ‘커뮤니티시네마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은 앞서 소개한 ‘커뮤니티시네마페스티벌 2021’에 참여하는 단체와 ‘모두를위한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 ‘자바르떼 사회적협동조합’,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영화제 개최를 비롯, 지역 영화관의 경제적인 자립과 지역 문화권 개선을 위한 여러 공동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커뮤니티시네마페스티벌 2021’ 주최·주관 단체 소개**  ㅇ 주최 주관 : 커뮤니티시네마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유통배급지원센터 인디그라운드  ㅇ 공동 주최 : 무명씨네 협동조합 / 영화진흥위원회  ㅇ 공동 주관 : 고씨네 주식회사 / 관객문화협동조합 모퉁이극장 / 모두를위한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 협동조합시네마엠엠 / (주)포스트핀 스페이스  ㅇ 협력/후원 : 전주국제영화제 / 서울독립영화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환경영화제  **●** **‘커뮤니티시네마페스티벌 2021’ 홈페이지** : <communitycinemafestival.com> |

**문의.** **‘커뮤니티시네마페스티벌 2021’ 집행사무국 namnamzin@gmail.com | Tel. 02-2632-5800**